

5G기술 '초협력'으로 글로벌 공략 본격화

테크메이커, 설립 11개월만에 중계기 선보여
바이에른 주를 시작으로 독일 전역 판매 확대
장비제조·공급은 국내전문기업 솔리드 맡아
"ICT 기술 활용에 글로벌 진출 사례 늘릴 것"

SK가 글로벌 기업과의 이른바 '초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한다.

SK스퀘어와 SK텔레콤은 전 세계 13개 국 2억 4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글로벌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의 합작법인인 테크메이커가 설립 11개월 만에 유럽 지역 맞춤형 '실내 5G 중계기'를 독일에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럽 최초로 통신사가 독자개발해 상용화한 실내 5G 중계기다. 이를 통해 2023년 약 103억 3000만 달러(약 12조 원)로 성장할 전망인 전 세계 인빌딩 솔루션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또 이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으로 더 늘려갈 방침이다.

●독일 전국으로 판매 확대

테크메이커는 박정호 SK스퀘어 대표(부회장)와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이 SK텔레콤의 5G 기술과 도이치텔레콤의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의기투합해 지난해 12월 설립한 기술 합작사다. 이달 1일 SK텔레콤이 분할되면서 SK스퀘어 산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번에 테크메이커가 개발한 중계기는 유럽 시장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형태의 제품이다. 건물 외부 안테나로 주파수 신호를 받아 실내로 전송함으로써 건물 안 5G 속도와 커버리지를 크게 향상시킨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엄격한 건축물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



어 실내에서 5G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실내 5G 중계기는 동영상 스트리밍, 교육, 화상회의 등을 많이 이용하는 오피스나 주택에 효율적으로 5G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이치텔레콤은 뮌헨을 주도로 하는 독일 동남부의 바이에른 주를 시작으로 테크메이커가 개발한 실내 5G 중계기 판매를 시작했다. 5G 커버리지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독일 전국으로 판매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등도 선보일 예정

테크메이커는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의 최신 5G 기술을 융합해 중계기를 개발했다. 800MHz, 1.8GHz, 2.1GHz 주파수 대역의 트라이밴드를 지원하며 독일 금융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상용화를 앞두고 한국에서 개발된 5G·LTE 중계기

를 유럽 사용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독일 주요 8개 도시에서 수개월 동안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검증과 정도 거쳤다. 중계기 장비 제조와 공급은 국내 중계기 전문기업 솔리드가 맡았다.

솔리드는 중계기 개발 초기 단계부터 테크메이커와 협력해 장비를 개발했으며, 이를 도이치텔레콤에 직접 공급한다. 테크메이커는 중계기 매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기술 로열티 명목으로 받을 예정이다. 또 향후 중계기 이외에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 솔루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하형일 SK텔레콤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 담당은 "테크메이커 중계기 사업은 SK텔레콤이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기술개발 노하우의 결실이다"며 "SK텔레콤의 ICT 혁신 기술을 활용을 글로벌 진출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테크메이커 엔지니어들이 독일 바이에른 주 뉘른베르크의 오피스 건물에 자체 개발한 '실내 5G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해 11월 영상회의를 통해 도이치텔레콤과 기술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맺고 있는 박정호 SK스퀘어 대표. 사진제공 | SK텔레콤

삼성 '2021 애뉴얼 포럼' 온라인 개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통해 연구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2021 애뉴얼 포럼'을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연구진 485명이 참석해 총 69개 과제에 대한 연구 교류를 진행한다.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심사위원은 물론 자문위원, 발표 과제 관련 다른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초청연구진 등이 참석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과학 기술 육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1조5000억 원을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 지원 공익사업이다. 지금까지 총 706건의 연구과제에 9237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

LGU+, '지능형 인프라 라이다' 실증



LG유플러스는 서울로보틱스와 함께 '지능형 인프라 라이다(LiDAR) 인식 기술' 실증(사진)을 한다고 21일 밝혔

다. 주로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는 LiDAR 센서를 교차로 등 도로 인프라에 구축해 차량·이륜차·보행자 등 도로 위 객체들을 인지하는 기술이다. 센서 1대만으로도 24시간 내내 도로 상황을 감지할 수 있고, 형상만 인식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없다. 서울로보틱스는 LiDAR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다. 반경 100m 안의 객체를 4cm의 오차내로 감지하는 LiDAR 데이터 분석 기술력을 가졌다. 양사는 이달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LG유플러스 사옥 앞 교차로에 LiDAR를 설치하고 기술실증에 돌입한다.

LG전자, 엔비디아와 맞손...게임기 없이도 스마트TV서 게임 즐긴다

LG스마트TV에서 '지포스나우' 서비스 시작
'가오겔' 등 총 1000편 이상의 PC게임 제공

LG전자는 컴퓨팅기업 엔비디아와 스마트TV 콘텐츠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웹OS'를 탑재한 LG스마트TV에서 '지포스나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포스나우는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된 PC게임을 원격으로 즐길 수 있는 엔비디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다. 호환 가능한 컨트롤러만 연결하면 고성능 PC에서나 즐길 수 있던 게임을 스마트TV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크라이시스 리마스터드 트릴로지' 등 최신 게임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총 1000편 이상의 PC게임을 제공한다.

TV 업계에서 지포스나우 전용 앱을 탑재하고 서비



▲LG 스마트TV에서 구동한 지포스나우 앱. 사진제공 | LG전자

스를 제공하는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전 세계 80여 국가에서 올해 출시된 4K 해상도의 올레드, QNED, 나노셀TV(웹OS 6.0 탑재 모델)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지포스나우를 이용할 수 있다. 홈 화면 내 LG 콘

텐츠 스토어에서 전용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는 현재 스마트TV에서 지포스나우의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스마트TV에 탑재하는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웹OS의 강점을 앞세워 TV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웹OS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스마트TV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왔다. 전 세계 25개국에 1900여 채널을 제공하는 무료방송 서비스 'LG 채널'이 대표적이다. 국내외 유력 OTT 업체들과도 폭넓게 협업하고 있다.

정성현 LG전자 HE서비스기획운영실장은 "고객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지속 확대하며 기존의 TV 시청경험을 넘어선 LG TV만의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11번가, 오늘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11번가는 미국 최대 쇼핑행사 중 하나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를 맞아 '11번가 블랙프라이데이 오리지널' 세일을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아마존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8월 오픈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판매순위가 높았던 제품과 그동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서 인기가 높았던 제품군을 엄선해 5만여 개 이상의 아마존 인기상품을 준비했으며, 최대 50% 할인한다. 여기에 11번가 해외직구 카테고리 내 550만개 인기 상품까지 더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들은 매일 5000원 할인(5만 원 이상 구매 시) 쿠폰을 받을 수 있고, 행사 기간 중 SK텔레콤의 구독 패키지 상품 '우주패스'에 신규가입한 고객은 2000원 할인(2만 원 이상 구매 시)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우주패스 고객에게는 매일 1만 원 할인(5만 원 이상 구매 시, 10개 카드사 전용) 쿠폰을 지급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22일(월)		
서울 60/10	인천 60/60	춘천 70/20	강릉 70/0	대전 60/60	전주 60/60
3 5	5 6	3 7	7 10	5 8	7 8
광주 60/30	대구 60/20	부산 60/20	창원 60/2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7 9	8 10	12 13	10 12	11 12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0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동아일보사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